

1. 문제제기
2. ‘祭祀說話’에 대한 신세대의 해석
3. 청자의 성별에 따른 해석의 차이
4. 전승의식의 변화와 구비전승의 方向

1. 문제제기

본고에서는 구비설화 가운데 유교의 조상숭배 儀式인 祭祀를 소재로 서사가 전개되는 ‘제사설화’를 매개로, 설화 전승자의 의식변화와 그에 따른 구비전승의 方向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현재적 삶에서 전통적 儒敎 이념은 근대를 경험한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특히 유교 이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孝의 의무는 부모 생전에 한정되지 않고 부모 사후에도 여전히 부과되는바, 자손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냄으로써 조상이 돌아가신 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다.

유교이념에서 볼 때 인간이 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요, 근원의 시초를 돌이켜 보는 ‘報本反始’의 도리를 실천하는 방법인 것이다.

유교의 祭禮의식은 조선시대 양반계층의 문화로 시작되었지만, 후기로 가면서 조상신에 대한 제사는 일반 서민들의 삶 속에까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¹⁾ 주자가례로 요약되는 공식적 유교의례인 제사의 ‘규범’과 민중의

* 본 논문은 2009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조교수(한국문화와 문화전략연구소)

1) “유교식 의례는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는데 특히 18, 19세기에 중인과

조상숭배의식인 제사의 ‘實現態’ 사이에는 실제로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제사에 대한 설화전승자들의 인식을 담고 있는 구비설화를 통해서, 상층의 공식문화인 유교의 제사가 민중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이다.

더불어서 과거로부터 전승되어온 ‘제사설화’ 각편에 담긴 話者의 의식과 오늘날 이 설화를 해석하는 신세대 聽者들의 의식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거리를 측정해 본다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 토양인 혈연주의와 가족주의 그리고 孝사상의 변화양상을 섬세하고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단서를 얻게 될 것이다. 즉, 1980년대에 수집된 『韓國口碑文學大系』 소재 구비설화에 나타난 화자들의 의식과 20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이 설화를 해석하는 20대 청년들의 의식을 비교 고찰하는 작업은,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한국 사회의 의식변화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제사설화가 채록되던 1980년대(1980년-1988년) 당시 제보자들의 연령은 50대 후반에서부터 80대 중반이었는데, 주로 60세에서 80세인 화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룬 ‘제사설화’를 구연한 화자들은 대략 190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화자들은 스스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전에 부모나 조부모 세대로부터 전해들은 설화를 구연한 것이라고 볼 때, ‘제사설화’ 각편 속에는 적어도 19세기 중반 이전을 살아갔던 한국인들의 의식이 녹아있는 셈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2009년 1학기과 2학기에 걸쳐 남녀 대학생과 대학원생 40여명에게 ‘제사설화’ 유형²⁾의 설화 각편을 배부하여 읽게 한 후에, 각자

상민들 중에서 양반 신분을 뒤늦게 획득하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유교 제사를 모시는 경향이 생겨난다. 조선 중기이후에 전개된 생산력 발전과정에서 경제적 부를 축적한 하층민들이 신분상승을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주자가례(특히 조상제사)를 적극 실천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김미영, 「‘제사 모셔가기’에 나타난 유교이념과 양반지향성」, 『민속연구』 제9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233면.

2) 제사설화의 하위유형은 이인경,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2008, 22면에 제시된 ‘제사·혼령’ 제제로 분류된 다음의 13개 설화유형이다.

- 433-4 잘못 지낸 제사로 효도하기
- 436-2 친자식의 제삿밥 먹는 혼령
- 621-3 환생하고 자기 몸 찾지 못하기
- 633-7 죽은 남자와 동침하고 자식 낳기
- 641-2 구렁이가 된 사람

본인이 흥미를 느낀 설화 각편을 골라서 그에 대한 감상문을 간단히 적어 보게 하였다. 그리고 “그 설화에 담긴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그 설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승해주고 싶은가, 또는 그 설화를 개작하고 싶은가?”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포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얻은 학생들의 감상문은 모두 원고지 600매 정도의 분량에 이른다. 본고에서는 제사설화에 대한 전승자 의식의 변화를, 지면관계상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설화유형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제사설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양적 측면에서 볼 때 빈약한 편이며, 질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유교 의례로서 제사의례를 행하는 문화적 토양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쟁거리를 남겨놓지 않았다. 이는 ‘제사설화’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극진한 효와 조상신숭배라는 유교적 의무의 정당성을 전제로 한 것이란 점에서, 연구자들이 이런 전통문화의 당위적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연구를 진행해온 탓으로 보인다. ‘제사설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구비설화에 나타난 제사문화를 추출하고자 한 임재해의 연구,³⁾ <부정한 제사음식> 설화유형에 한정하여 변이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한 정재민의 연구, 그리고 <친자식의 제삿밥 먹는 혼령> 유형에 나타난 혈연의식과 화자의 성별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밝힌 이인경의 논의 등이 있지만 ‘제사설화’를 수용하는 현시대 聽者들의 인식에 주목한 예는 없었다.⁴⁾

642-1 원귀 되어 소원 풀기

642-2 버림받은 여자 원귀 되어 보복하기

644 제사 지내고 혼령의 존재 인정하기

644-1 제삿날이면 오는 혼령

644-2 남의 제사 대신 지내주고 잘되기

644-3 제사 차린 정성 부족하다고 해 끼쳐준 혼령

644-4 다른 사람에게도 제삿밥을 먹게 해준 혼령

644-5 제사 정성껏 지낸 자손 도와준 혼령

- 3) “제사문화는 제사 자체보다 제사에 관한 인식을 드러내는 문화현상에서 잘 표착할 수 있다. 제사설화는 제사 지내는 방법의 실재를 말하지 않는다. 제사 관련 설화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이치와 정신과 그 영험을 말한다. 설화가 말하는 내용들은 제사를 떠받들고 있는 문화적 토대이자 실천적 힘이라 할 수 있다.” 임재해, 『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 『민속연구』 제9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12면.
- 4) 정재민, 『<부정한 제사음식> 설화의 변이와 그 의미 - ‘神罰型’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0;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가계계승과 혈연의식, 『고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김상란, 『한국의 제사·혼령 설화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전통적 가치를 운반해주던 구비설화는 현재에 이르러 ‘化石으로 전락하여 골동품박물관에 갇혀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불변의 가치를 담은 古典으로 재해석되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구비설화는 오직 전승자들의 공감을 확보할 때에만 전승력을 지닌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의 구비설화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전승되어 갈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제 본 연구는 ‘제사설화’ 각편에 담긴 메시지나 화자의 의식을 분석하는 기존의 관습적인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앞으로 ‘제사설화’를 전승해갈 신세대 청자들의 가치관과 문화의식을 조명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한다.

2. ‘祭祀說話’에 대한 신세대의 해석

2.1. 奉祭祀의 당위성에 대한 회의와 蓄妾에 대한 비판

유교사회에서는 반드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 가문의 혈맥과 제사를 이어감으로써 개체의 限時性을 극복하고 영속하고자 하였다. 혈손이 지내는 제사가 중단되는 사태는, 개인의 삶의 단절이 아니라 그 가문의 선조들의 영속적인 삶을 단절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크나큰 죄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⁵⁾ 아래 설화는 영혼(祖靈)에게는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그러므로 제사를 담당할 자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석사논문, 2005.

5) “유교전통이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큰 염려로 삼고 異姓 양자를 허용하지 않고 혈연적 유대가 어느 정도라도 있다고 확신되는 혈족에서 양자를 들여오는 것도 생명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인간 자신의 개체성이 신체의 혈연적 연속성 속에 유지되는 것이라 한다면 조상은 바로 자신의 생명의 원천으로 개체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조상은 자신의 생명을 이어주었고 자신과 일체가 되며 후손으로 번성해가는 연속성의 선구라고 하면 그것은 생명의 뿌리로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마땅하다. 조상은 내가 소중히 지켜가야 할 나의 생명의 모습이기도 하다. 조상의 존중은 바로 자기 생명의 존중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기도 하다.” 금장태, 「조상숭배의 유교적 근거와 의미」, 『한국문화인류학』 제18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74면.

<저승차사를 보고 첩을 얻어준 부인>, [구비대계 5-1] 562쪽, 김기두(남, 72세) 구연

어느 날 밤 자식이 없는 노인의 집에 저승차사가 찾아왔다. 저승차사는 자신의 아들이 노인 집의 며슴인데, 자신이 제삿밥을 챙겨먹지 못했으니 이번에는 제삿밥을 얻어먹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노인이 저승차사의 아들인 며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자, 며슴은 정성껏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다. 이를 본 노인의 아내는 ‘작은 마누라를 두어 후손을 가지라.’고 남편에게 권하였다. 노인은 새로 장가를 가서 자손을 만들었다.

인간은 자신의 제사를 지내줄 후손을 두지 못하면, 조상신의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원귀가 되어 떠돌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전통사회의 가치관을⁶⁾ 위 설화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설화의 내용에 대해서 남성청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지면관계상 부분 발췌하여 제시한다.

(2-1-1) 예전에는 제사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사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자식(아들)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영감의 부인은 자기가 애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자존심까지 버리고 첩을 들여 자식을 얻는다. 지금 같으면 이런 씨받이문화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것은 윤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인과 단들이 살아서 외롭고 심심한 나머지 입양을 하는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제삿밥을 얻어먹기 위해 씨받이를 들여 애를 얻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정석한, 남, 23세)

(2-1-2) 이 설화는 제사와 자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 준다. 자신이 질투를 하지 않을 테니, 첩을 두어서라도 자식을 낳자고 말하는 부인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만큼 제사가 중요한 것일까? 본부인이 질투를 무릅쓰고라도 첩을 통해 자식을 낳으려는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단순히 대를

6) “조상이란 지위는 비가시적이며 단지 후손들의 제사행위를 통해 구체화될 뿐이다. 역으로 말하면, 제사를 받아먹지 못하는 영혼은 조상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여기(厲鬼)로 존재하게 된다.” 이육, 「제사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연구』 제16집, 한국유교학회, 2002, 95면.

이으려고 자식을 낳는 것보다는 죽은 뒤 제삿밥을 얻어먹기 위한 의도가 강해 보였다. 내가 만일 이 설화를 바꾼다면 저승차사가 돌아간 후, 본부인이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로 바꾸고 싶다. 귀신이 주인에게 신체를 쫓으면 이를 갚아야 하는 게 도리 아닌가? 왜 첩을 들여야 하는가. (이장원, 남. 27세)

위의 두 남성청자는 이 설화가 ‘제사는 꼭 지내야 한다. 그리고 자식이 있어야만 사후에 제사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런 설화적 메시지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두 남성청자는 사후에 제사상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줄 아들을 꼭 낳아야만 한다는 유교적 관념을 거부하면서, 특히 자식을 얻는다는 명분으로 첩을 맞아들이는 노인의 행위는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 혼인이란 애정을 통한 남녀의 결합이기보다 후손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신세대들은 자녀출산이란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당위적 의무가 아니라 부부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주관적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2-1-3) 저승차사의 경우를 보고서 노인이 첩까지 얻었다는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를 한 노인의 욕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저승차사가 왔으면 이승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승차사와의 대화 끝에 제사도 지내고, 마지막엔 ‘질투 안 할 테니 첩까지 두라.’는 허락을 받는 것은 대체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첩을 얻는 얘기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덧붙여진 듯한, 이야기를 해준 할아버지(화자)가 죽음도 넘어설 만큼 첩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느껴진다. 마지막에 ‘그런 게 지금 와서 잘못도 아니지.’하며 자신의 생각을 다시 말한 것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현실에선 이를 수 없는 자기 내면의 바람을 말한 게 아닌가 싶다. 난 아직 어르신 나이가 아니라 젊은 모르겠지만 분명 나를 포함한 요즘 20대에게 ‘첩을 얻는다.’라는 개념은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진다. (김우진, 남. 26세)

김우진은 노인이 첩을 맞아들이는 것은, 가문의 대를 잇고 자신의 제사를 지내줄 아들을 낳기 위한 교육지책이 아니라 본처의 동의를 쉽게 얻어서 性的 욕망을 실현하려는 남성적 책략이라고 본다. 첩을 얻은 노인의 본래 의도는 가계계승이라는 명분을 빙자하여 실제로는 개인의 性的 욕망을 채우고자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김우진은, ‘제사를 지내줄 아들을 낳아서 사후에 반드시 제사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이 설화의 주장을 처음부터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이 설화에 대해서 여성청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2-1-4) 이 설화는 ‘자식이 있어야 제사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다. 나는 이 설화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설화라고 생각한다. 설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남성중심사회였으므로 후처를 두어 자손을 낳게 한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21세기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이런 남성중심적인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고 계속 이어나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보라, 여. 24세)

(2-1-5) 이 설화의 화자는 시기심이 많은 부인이 첩을 두어서라도 남편이 제사상을 받게 하여 제사의 중요성과 그것의 당연함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한 이야기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서는 쉽게 와 닿지 않았다. 요즘 누가 제사를 걱정해 자신의 제사를 지내줄 양자를 맞아들이며 자식을 가진단 말인가. 하긴 지금의 사회에도 굳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설화가 그저 현대 사람들에게 아무 영감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히 판단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남녀의 역할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꼭 아들만이 부모를 봉양한다는 의식도 흐려지고 있다. 또한 자식 없이 부부끼리만 즐기며 사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자식에게 자신들의 노후 생활을 의지하는 노인들도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설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김예원, 여. 22세)

여성청자들은 이 설화에서 노인의 축첩이 일어난 원인은 남성중심사회의 가치관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 설화의 의미를 제사라는 유교적 의례의 중요성이 아니라 남녀평등이라는 가치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청자들은 이 설화를 사후에 제사상을 받고 싶어 하는 노인의 욕망보다는 아들을 낳지 못한 본부인의 상황과 가족 내 위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해석하고자 한다. 즉, 이들은 부부의 삶에서 아내의 역할이 남아 출산의 문제로 집약되던 전통사회의 가치관을 부정하면서, 남녀의 역할 분담이나 부모의 노후봉양에 대한 자녀의 의무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지적한다. 즉,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유교적 전통사회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교사회의 가족구조에서 부모에게 출산이란 개인의 욕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자식(아들)이란 부모에게 속한 개별적 존재이기 이전에 조상으로부터 현재의 자신을 거쳐서 후손으로까지 길게 이어지는 끈(統)의 한 가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세대 청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런 유교적 가치관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요컨대 이처럼 남녀평등의 가치관과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윤리관을 지닌 신세대 청자들로부터 거부감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내용의 설화는 미래에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전승되기 어려울 듯하다.

2.2. '생전의 약속을 깨고 제사를 원하는 어머니 혼령'에 대한 거부감

조상과 후손의 관계는 死後에도 여전히 이어진다. 祖靈은 제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후손들과 생전과 마찬가지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조상신은 제사를 지내주는 후손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여 그들의 禍福을 주관하고 있다. 구비설화에서 조상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닌 일상적 존재로 인식된다. 祖靈은 육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生者들과 동일한 물리적(육체적) 한계를 호소한다. 이는 제사를 받는 대상이 生者들과 늘 함께 생활하던 가까운(익숙하고 범상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살아

생전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도리라고 믿는 것이다.

<저승에서 먹는 제사음식>, [구비대계 8-13] 68쪽, 박봉하(여. 76세) 구연

늙은 어머니가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아들에게 “제사음식은 풍성하지 않아도 좋으니 살아있을 때 마음껏 쇠고기를 먹게 해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쇠고기를 실컷 드시게 하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어머니가 저승에서 제사음식을 혼령들끼리 나눠 먹는데, 자신은 그럴 수가 없어 굶게 되었다. 이것을 본 대장 혼령이 부적을 건네 주며 아들의 이마에 붙이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아들 이마에 그 부적을 붙이자, 아들은 머리가 아파서 점쟁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점쟁이는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머리가 아픈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에 아들이 어머니 제사를 정성껏 지내자 병이 나았다.

위 설화에는 혼령들끼리도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나름대로의 관습이 영혼들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의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그러므로 祖靈에 대한 제사는 당연히 지내야 하며, 이 보편규범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사는 특정한 부모와 자식이 선택적으로 맺는 私的이고 개별적인 약속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관습이며 더 나아가 규범이란 인식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⁷⁾

청자들 가운데에는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만 한다는 이 설화의 메시지를 충실히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흥미를 끈다. 먼저 아래는 이 설화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호의적 태도를 보인 청자들의 감상문이다.

(2-2-1)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동한 아들을 보며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제사음식은 풍성하지 않아도 좋으니 살아 있을 때 쇠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 달라.”라는 말은 그 만큼 쇠고기를 좋아하신다는 말인데 그것을 곧이

7) “조상의 힘에 대한 경험은 대개 이 부정적인 힘을 통해서이다. 극한적으로 말하면 제사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삶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육, 「제사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연구』 제16집, 한국유교학회, 2002, 96면.

곧바로 받아들여 살아계실 때 많이 사드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제사조차 지내지 않았으니 말이다. 어머니의 제사를 지낸 것은, 자기의 머리가 아픈 것을 낫게 하기 위한 대책이었는지, 아니면 그 때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다. 아들이 자신의 불효를 깨달았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더 크게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나연, 여. 25세)

(2-2-2) 여기에서 나오는 아들은 그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늙은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머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이다. 제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성스럽게 지내는 것은 살아계실 때 못 다했던 효행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뒤늦게 깨닫고 아들이 어머니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는 것으로 보아 앞서 말했지만 심성은 고운 사람인 것 같았다. 나는 이 설화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지내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모두 저승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음식을 못 챙겨 드시고 외롭게 계시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제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인하, 남. 24세)

(2-2-3) 쇠고기가 먹고 싶어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던 늙은이는, 죽어서 본의 아니게 큰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만다. 늙은이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제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제사 역시 지내지 않는데, 이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다. 벌 받아 마땅하다. 아버지의 제사를 소 한 마리와 바꿔 버리는 큰아들을 보면 한심스럽고 세상이 삭막해 보이기까지 한다. (권태호, 남. 24세)

위의 청자들은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당위성에 동의하면서 자식이 부모님의 제사를 지낼 때에는 특히 진정한 효심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제사라는 유교적 의례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 설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생전에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한 어머니의 말을 끝이곧대로 믿어버린 아들의 야박함을 비난한 청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청자들은 아들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제사상에 집착하는 어머니 혼령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2-2-4) 죽기 전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해서,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르느라고 후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빈말로 했던 말에 상대방이 그 말대로 움직이는 것이 여성화자로 하여금 서운함을 느끼게 한 듯하다. 하지만 결코 자식 된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없는 타입이다. 해달라는 대로 해줬더니 이제 와서 탄소리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김우진, 남. 26세)

(2-2-5) 아들이 생전에 소고기를 싹껏 드시고 싶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렸지만, 죽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해를 가한다. 자신의 입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도 왜 어머니는 아들을 그 고통으로 몰아넣었을까.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다니 제삿밥이 그렇게나 중요했던 걸까. 물론 어머니가 느꼈을 섭섭한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어머니의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다. (방진선, 여. 24세)

(2-2-6) 아들은 평소에 소고기를 해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줬다. 어머니는 죽어서는 안 해줘도 된다고 분명히 유언처럼 말했는데 막상 자신이 죽고 저승사람이 되니까 아들에게 섭섭함을 느낀 것이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신의 기일을 챙기지 않는 것이 서운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입장도 생각해줬으면 한다. 아들은 소고기 값을 치르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했을 것이다. 살아서 먹고 싶은 만큼 대접했는데, 죽어서까지 섭섭함을 느낀다면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 살아있는 아들이라도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으신 분이다. 어머니는 저승 사자가 되어서라도 일 년에 한 번 아들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생전에 자신이 한 말이 있으니 제사상을 받지 못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 (이아람, 여. 24세)

위의 청자들은 물론이고 지면관계상 이곳에 소개하지 못한 청자들 대부분은, 어머니 혼령이 생전에 아들에게 했던 말을 어기고 제사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어머니 혼령이 변덕스러울 뿐 아니라 아들에게 너무 심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청자들은 이 설화에서 자식이 생전에 어머니가 요구한 소고기 반찬을 해드렸으므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본다. 즉,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이루어진 모종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아들에게 어머니 혼령이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런 사고방식은 ‘무조건적인 효행’을 요구하는 중세적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다.

어머니 혼령의 감정이나 욕망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의무보다는 자식이 치러야 하는 경제적 손실과 희생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모종의 계약관계처럼 여기는 신세대들의 가치관 때문인 듯하다. 그들은 애정을 기초로 한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조차도 이해타산에 입각한 상호교환의 조건부적 계약관계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청자들은 설화에서 어머니 살아생전에 소고기 반찬을 해드린 아들의 경제적 비용에 우선 주목하면서, 사후에까지 여전히 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려는 어머니 혼령을 강하게 비난한다. 어머니 혼령이 혹시 물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했다면 이 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또한 신세대들에게 어머니(부모)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당연히 施惠를 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질 뿐, 자신들이 봉양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인식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설화에서 어머니 혼령이 자식에게 제삿밥을 요구하려고 아들에게 危害를 끼친다는 내용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악행으로 규정된다. 어머니란 존재는 본래 자신의 욕망을 포기한 채 언제나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고 양보해야 하는忍苦와 희생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母性神話에 비추어 볼 때, 신세대 청자들은 이 설화에 등장하는 어머니 혼령의 소행을 이해하기도 용서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니 의미가 없을 뿐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풍족하게 잘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아람의 현실주의적인 발언을 통해서 신세대들의 생사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일원론적인 세계관은 사후의 세계와 현실세계의 가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죽은 조상과 나의 연결고리에 대해 무관심한 이런 태도는, 조상과 나의 끈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의 근본에 보답하고 근원의 시초를 돌이켜 보는 ‘報本反始’의 정신에 기초한 제사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설화에서 죽은 어머니 혼령이 진정 소망한 것은 단순히 ‘제사상’이라는 물질이 아닌 사후에도 여전히 아들과의 유대를 이어가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신세대 청자들은, 사후에도 여전히 천륜의 끈을 확인하면서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고픈 어머니 혼령의 욕망을 읽어내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 혼령의 애절한 집착보다, 자식이 치러야 할 경제적 부담이 전면에서 부각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전통적인 효 관념을 거부하고 보다 물질 중심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경제관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신세대들은, “부모님 생전에 아무리 효도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후에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만 한다.”라는 이 설화의 메시지를 수신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사후세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죽은 조상과 나 사이의 끈을 중시하기보다는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두면서 단독자이며 개별자로서 존재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이렇게 볼 때, 이 설화유형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고스란히 전승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2.3. 祭需 장만에 대한 부담 그리고 보상의 환상성에 대한 의혹

아래의 설화는 양반들의 유교문화인 제사가 서민층까지 깊숙이 파고든 사실을 엿보게 한다. 집을 떠난 과객일지라도 조상의 제삿날을 잊지 않는다. 주인장은 떠돌이 신분과는 걸맞지 않는 과객의 ‘제사’의식을 고귀한 ‘효’의식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⁸⁾

<이산해 이야기>, [구비대계 3-1] 217쪽, 홍정유 (남. 64세) 구연

한 과객이 어느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과객이 차려 준 밥을 먹지 않고 따로 챙겨두는 것을 본 주인이 묻자 과객은, “아버지의 제삿날이라 밤에 제사를 드리려고 챙겨두었다.”라고 하였다. 그의 효성에 감복한 주인은 며느리에게 제사상 차릴 것을 부탁하자,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거절하였으나 셋째 며느리는 정성껏 제사상을 차려주었다. 그날 밤 셋째 며느리의 꿈에, 과객의 아버지가 나타나 고맙다며 구슬을 한 개 주었다. 그 후 아이가 없던 셋째 며느리는 죄를 지어 적소에 가 있는 남편과 동침하는 꿈을 꾸고 놀랍게도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산해이다.

유교적 의례인 제사는 조상과 후손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당위적인 의례이다. 따라서 제사설화에서 제사의 영험은 건강한 후손을 생산하여 혈연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이 설화에서는 남의 조상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 준 일도 이렇게 福이 되는데, 하물며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데에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면 그 福祿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2-3-1) 주인과 셋째 며느리의 언행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반면에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거절을 하고 만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가까운 지인들과도 거리감을 두면서 살아간다. 즉 은혜를 베풀면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오는 걸 망각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용해서 보답을

- 8) 한편 첫째 며느리가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했던 셋째 며느리가 제사상을 차려 주어서 복을 받는다는 변이형은 남성화자의 것에서만 보인다. 이는 맏며느리의 위상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남성들보다 훨씬 명료하기 때문일 것이다. 남의 조상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 주고 복을 받는 며느리의 이야기에는, 대개 집안 大小事를 도맡아하는 맏며느리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지지가 나타난다. 이런 사정은 특히 여성화자의 각편에서 매우 선명하고 뾰족하게 드러난다. 여성화자들은 예외 없이, 집빈객과 갖가지 굶은일을 하느라고 종일 고생한 맏며느리가 밤에 다시 일어나서 과객의 제사상을 차려 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을 공을 들여 서술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맏며느리가 담당하는 현실적 역할을 남성화자들보다 여성화자들이 훨씬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바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배로 추구하기 위한 술책을 쓰는, 전자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김인하, 남. 24세)

(2-3-2)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현대인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셋째 며느리는 전통사회의 풍습을 잘 지켜나가려는 모습이 보였다. 나도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와 별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내심 씩씩한 감정이 들었다. 실제로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사를 귀찮게 여기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철훈, 남. 27세)

설화의 주제에 대한 신세대 청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엉뚱하거나 냉담하다. 우선 이들은 제사를 지내는 일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리고 며느리의 남의 집 제사상 차려 주기 행위는 이 설화가 전달하려는 ‘제사’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그저 남을 돕는 선행이라는 훨씬 범박한 의미로 해석되고 만다.

게다가 이들은 며느리와 과객 사이에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모종의 불륜 관계를 상상하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까지 한다. 이쯤 되면 이 설화의 주제는 제사의식과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

(2-3-3) 이 설화에서 황당한 부분은, 꿈속에서 남편과 동침했는데 그날 같은 시간에 남편도 부인과 동침하는 꿈을 꿔고 그 결과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내가 남편이나 시아버지였다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으니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보인다. 그리고 첫째, 둘째 며느리는 제사상 차리기를 거절했는데 셋째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시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만약 셋째 며느리의 남편이 적소에 가 있지 않았더라도 한밤중에 과객 부모의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차려 주었을지 의문이다. 이 이야기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다면 셋째 며느리의 남편이 적소에 가 있다는 이야기는 빠지는 것이 더 설득력을 높여줄 것이다. (강하나, 여. 24세)

(2-3-4) 이 설화의 주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자신의 일인 것처럼 진심을 다해 도움을 주고, 선행을 베푼다면 언젠가는 꼭 커다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선행을 몸소 실천하라’는 주제를 부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꿈에서의 동침과 그로 인해 태어난 기남자(奇男子)’를 사용했다. 그 의도나 내포된 의미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너무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 오히려 설화 전체의 교훈적 의미가 퇴색해 버리는 것 같다. 차라리, ‘셋째 아들은 평소 덕이 높고 인자하여 베풀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의 인품을 잘 알았고 또한 꿈에서나 그려퇴던 사랑하는 아내였기에, 자신이 없는 사이에 일어난 한 번의 실수로 얻게 된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보겠다고 눈감아주었다.’는 결말은 어떨까? (김진경, 여. 22세)

(2-3-5) 과객이라는 정체가 모호한 인물에게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데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전부 대놓고 싫다고 한다. 나 역시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고약하게 시아버지의 말을 거절하는 것도 옳진 않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의 결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이다. 셋째 며느리는 과객의 제사를 지낸 후 꿈에서 백발의 노인에게 옥구슬을 받는다. 그리고 태기를 가져 곧 아들을 낳았고, 남편 역시 ‘꿈에서 아내와 만나 잠 자리에 들었다’며 이야기는 性的으로 진행된다.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현실적으로 ‘과객이랑 셋째 며느리랑 바람이 났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꿈에서 당신을 보았소.” 라고 말하는, 셋째 며느리의 남편도 참 바보 같다. 그렇게 해서 이산해를 낳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두 며느리는 더 한심해 보인다.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지. 괜스레 ‘과객과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는 상상만 커져가는 것 같다. (김우진, 남. 26세)

청자들은 이처럼 남의 집 제사상을 차려 준 착한 며느리에게 得男이라는 보상이 돌아갔다는 서사전개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신세대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계관은, 환상성을 통해 전달되는 설화의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해내거나 수궁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듯하다. 그리고 남녀 청자 모두 이 설화를 性的인 시각에서 바라보려

고 한다는 점에서, 이 설화의 주제인 ‘제사의 중요성과 이타적 행위의 소중함’ 따위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 설화에 담긴 설화적 논리를 살펴보자. 남의 집 제사상까지 차려 주는 착한 며느리는 그에 대한 보상을 마땅히 받을 만한데, 그 보상의 형태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아들을 낳는 것이라는 점이다. 며느리의 선한 인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난다. 우선 시아버지의 요청에 순순히 복종하는 효부의 면모가 그러하고 타인에 대한 진실한 배려와 봉사의 마음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런 선행에 대한 보상이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자칫 인간의 선행이 미래에 주어질 모종의 보상을 기대한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행에 대한 보상은 초월적 세계의 논리에 의거한 절대적 존재의 환상적 형태의 것으로 나타나야 설득력이 커진다. 이렇게 볼 때, 선행을 베푼 며느리가 남편과 실제로 동침한 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적인 서사전개는 오히려 이 설화의 주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부의 정상적인 동침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였다면 그것이 선행에 대한 초월적 세계로부터의 보상이란 점을 증명할 여지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설화의 문면에서, 남의 집 제사상을 마련해준 며느리의 행위가 사실상 썩 내키지 않지만 시아버지의 징계가 두려워서 억지로 행한 비자발적 선행인지, 혹은 과객으로부터 돌아올 모종의 보상을 기대하고 행한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선행인지를 분별해낼 객관적이고 분명한 표지를 찾기 어렵다. 며느리의 내면을 화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초월적 세계의 절대선, 즉 神的 존재를 상정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전지전능한 존재는 이 며느리의 선행이 어떤 동기에서 일어난 것인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세대 청자들이 대안으로 요구한 것처럼 부부가 실제로 동침한 결과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으로 결말이 나면, 제사의 중요성이나 효의 가치를 부각시키려는 이 설화의 주제의식은 상당히 약화되고 말 것이다.

이 설화를 수용하는 신세대들의 사실적인 관점은, 남의 집 제사상을 정성스레 차려 주는 선행을 함으로써 절대자의 축복을 받아 아들을 잉태한

‘착한 며느리’를 줄지에 간통을 저지른 ‘패륜녀’로 의심하는 아이러니를 이끌어낸다. 동일한 설화라 할지라도 청자들이 어떤 문화적 코드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의 편폭이 상당히 넓게 벌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정리하건대, 이 설화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방식의 보상을 택한 것은 이승과 저승이 유기적으로 연동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설화는 죽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그 실제적 효용과 실천의 가부를 인간이 따져서는 안 되는 당위적 가치라는 점을 이런 환상성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세대 청자들은 이런 선형적 전제를 거부한다. 이들의 문화적 코드로는 전통사회의 가치를 읽어내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3. 청자의 성별에 따른 해석의 차이

3.1. 유교문화의 남녀차별 의식에 대한 비판

조선초기에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윤회봉사를 하기도 하였지만, 현대인에게 제사란 무릇 장남이 도맡아서 지내는 것이고 딸은 봉제사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아래의 설화는 혼령이 아들의 제사음식 준비가 부실하자 딸의 제사를 받으러 갔다는 내용이어서 흥미롭다.

<제사 잘 지내고 태어난 월사>, [구비대계 3-2 141쪽, 지재현 (남. 72세) 구연

김사제가 한양에 다녀오다 어느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마침 그 날은 그 집주인 아버지의 제삿날이었다. 김사제는 과객이었으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 옷을 다시 입었다. 잠시 후, 그는 혼령이 제사를 받으러 들어가더니 금방 나오는 것을 보았다. 김사제가 달려 나가 혼령에게 인사를 한 후 일찍 나온 이유를 묻자, “제사가 불충분해서 응감을 못하고 딸의 제사를 받으러 간다.”라고 하였다. 김사제는 그 일을 주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주인은 내년 제사

때에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다시 돌아온 제삿날, 김사제는 정성들여 제사상 차리는 법(젓가락으로 쌀 집어내라, 떡을 만들 때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라, 국을 끓일 때 체에 걸러내라)을 가르쳐 주었다. 그날 밤 주인의 아버지 혼령은, 작년과는 달리 오랫동안 머물다 돌아가면서 “제사음식을 잘 먹고 간다.”라고 하며 천당의 옥황에게서 받은 ‘달’을 주고 갔다. 그 후에 집주인은, 월사月沙라는 아들을 낳았다.

(3-1-1) 이 설화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음식이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정성만 있다면 딸의 제사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준다는 내용 때문이다. 출가의인이라 해도 친정아버지의 기일을 잊지 않고 흰죽이라도 정성껏 끓여놓는 딸의 모습과 그 딸의 정성을 알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감동적이다. (박수연, 여. 25세)

(3-1-2)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보며 뿌듯해 하셨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 딸 차별 없이 자신의 기일을 잊지 않는 자식의 정성을 알아주는 것 자체가 참으로 좋았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제사상을 받으러 왔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고치려고 하는 행동, 그리고 실제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딸도 아버지의 기일에 음식을 마련하는 행동에서 자식들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느낄 수 있었다. (김나연, 여. 25세)

이 설화가 전달하는 주제는 아들이 지내는 제사라고 할지라도 정성이 부족하면 혼령이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종의 경고이다. 설화의 결론은 분명히 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정성을 들어서 지낸 장남의 제사에 대한 아버지 혼령의 축복이다. 그러나 여성청자들은 설화 내용에서 그런 주제의식보다는 딸도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지냈다는 점과 혼령이 이를 흠향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반응은 유교문화의 남녀차별의식에 대한 반감과 남녀 평등 문제에 대한 현대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의 소산일 것이다.

딸도 친정 부모의 제사를 지낼 수 있다거나 혼령이 딸의 제사를 흠향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동했던 여성청자들에 비해, 아래의 남성청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아버지 혼령이 딸의 제사를 받고서도 딸에게 아무

런 복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과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3-1-3) 이 설화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정성보다는 제사의 규모를 따지는 조상의 마음이다. 아들이 지낸 제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딸의 집에 가서 흰죽을 먹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보답을 해주지 않는다. 아들이 지내는 제사에 대해서 화가 나면, 자신의 기일을 잊지 않는 큰 딸에게 고마워할 법도 한데, 조상은 오히려 다음 해의 제사에 아들에게 복을 주고 간다. 물론 정성이 들어가면 그 규모도 커지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제사는 외형적으로 조상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제사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이 갈 곳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철훈, 남. 27세)

(3-1-4) 다양한 음식들로 화려하게 제사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돌아가셨지만 어른이신 조상께서 드시는 음식이니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설화에서 아쉬운 점은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점이다. 큰 딸 집에서 흰죽을 먹었는데도 아무런 보답을 해주지 않고 다음 해에 아들 집에서 제사를 치르고 아들에게만 보답을 해준다는 점과, 그 복이 월사라는 아들을 낳는 점인 것으로 보아 남성중심사회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인하, 남. 24세)

(3-1-5) 제사를 지낼 때 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딸과 아들 모두 함께 지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제사와 재산을 모두 아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아들은 제사음식을 만들 때 많은 제사음식을 하지만 딸은 흰죽 한 그릇이다. 이것을 볼 때 아들은 조상은 잘 모시나 시집가버린 동생에 대해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 같아서, 딸이 불쌍했다. (옥정훈, 남. 25세)

친정집의 재산분배 문제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던 여성청자들에 비해, 남성청자들은 남녀평등의 문제에 더 예민하게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온 남학생들의 치밀한 자기검열에 따른 현상인 것인지, 인간의 보편적 양심에 의한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결과인지는 알 길이 없다. 물론 이 감상문의 수신자가 필자(여성)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청자가 작성한 다른 설화에 대한 감상문들을 살펴볼 때, 역시 필자(기성세대)가 수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효 이념이나 타인을 위한 희생과 배려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당당히 표출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청자들이 감상문을 작성할 때 기대독자(수신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의식한 자기검열 때문에 나타난 왜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남성청자들이 보여준, 아들과 딸의 제사에 대한 조상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관심을 다른 방향에서 해석해볼 가능성이 있다. 제사를 무조건적인 효의 실천, 즉 부모를 섬기는 자식의 당연한 도리로 인정하기보다는 ‘부모를 향한 자식의 봉사와 그에 대한 조상의 적절한 보상’이라는 교환가치와 분배의 정의라는 경제적 논리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사는 반드시 장남이나 아들이 지내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열린다. ‘제사는 유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지내면 된다.’라는 합리적인 논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청자들은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유산을 물려받은 후에 딸도 친정부모의 제사를 지내주기를 원하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신세대들에게 ‘봉제사’란 부모를 향한 그리움과 효심 같은 진정성을 담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노동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어찌 되었건 남성청자들이 보여주는 이런 의외의 반응이 상당히 신선하게 보이는 것은 틀림없다.

3.2. 남녀 인물을 향한 감정이입의 편차

‘제사설화’에 등장하는 혼령의 모습은 초월적이거나 신비하지 않은 일상성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 고인의 생전 모습에 대한 후손들의 기억이 제사라는 계기를 통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상은 죽어서 제사를 흠향하는 祖上神이 되었지만 현세적 삶의 연장선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을 보게 된다. 아들이 장가를 못 간 것을 늘 안타까워 하다가 숨을 거둔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상한 효행>, [구비대계 2-2] 564쪽, 박찬웅(남. 48세) 구연

어떤 학자(박문수)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외딴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날은 주인집 제삿날이었다. 그런데 보니 집주인 부부가 제사를 지내는 중에 제사상 앞에 이부자리를 깔고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학자는 제사가 끝난 뒤 찾아온 집주인에게 물었다. 그러자 집주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언제 네가 장가를 가서 두 부부가 잠자는 걸 보겠느냐?’라며 소원하셨기에, 이렇게나마 우리 부부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어머니 사후에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된 아들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마음이 상호교감하고 있다는 믿음 아래,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소원을 풀어 드리려고 제사상 앞에다 이부자리를 펴고 아내와 함께 눕는다. 아들은 걸치례의 禮로서 제사의 규범을 따라하는 대신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을 위로해 드릴 실제적인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아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3-2-1) 가난한 과부에게 아들은 또 다른 자신이자 삶의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한 아들이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다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정도의 한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아

들은 장가를 갔고, 제삿날만이라도 어머니를 안심시켜 한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제사방법에 어긋나는데다가 불효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행위이지만 ‘禮’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그리고 한 번 본 적도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 이상한 일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해주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이 감동적인 설화였다. (박수연, 여. 25세)

(3-2-2) 죽은 과부의 입장에서 외아들이 장가가는 것도 보지 못 하고 눈을 감았을 때에는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안쓰러웠을 것이다. 살아 있을 때에도 며느리와 손자를 보는 것이 소원이었으니 말이다.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들은 어머니 혼령이 와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야 어머니도 마음을 놓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좋은 음식과 계기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의 효도를 어머니께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아들을 볼 때, 과연 진정한 효자라고 생각했다. 아들만이 아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려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함께 하고 있는 며느리 또한 칭찬받아 마땅한 효부라고 생각한다. (김나연, 여. 25세)

(3-2-3) 이 설화는 살아생전 어머니께 하지 못했던 효도를 어머니 제삿날에 어머니의 소원을 그대로 행하는 아들 이야기다. ‘아들은 어머니가 계실 때 혼인을 하지 못해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어머니께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것인데.....’ 하고 속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제삿날에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는 아들이 정말 대견스럽기도 했다. 제사의 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효자라는 생각에 어머니의 입장에서 정말 뿌듯함을 느꼈다. (유수정, 여. 24세)

여성청자들은 아들이 이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효성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또한 여성청자들은 이 설화를 주인공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지

않고, 어머니의 욕망이나 며느리의 행동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여성청자들은 아들의 이런 이상한 효성을 받게 되는 어머니 혼령의 정서와 남편(아들)의 이상한 행동에 순순히 동의해 주는 착한 아내(며느리)의 마음씨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3-2-4) 아들은 살아생전에 장가를 못 가서 어머니의 속을 많이도 썩였나 보다. 돌아가신 어머님에게 그러한 행동을 보여드린다는 것이 필자가 보기에 도 효행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 행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행동이라 할 지라도 그것이 이승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모님이 도둑질을 해서라도 잘살길 바라셨다고 해서, 도둑질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한 효행은 현실에서 이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황혁진, 남. 24세)

(3-2-5)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극진히 모시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설화 속의 부부는 어머니의 소원이었다며 제사상 앞에서 잠을 청한다. 박문수에게는 당연히 께뻘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과연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어머니의 소원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소원은 단지 당신이 살아계실 때 장가를 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닐까? 아들이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감이 없지 않다고 본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앞에 이부자리를 펴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김창민, 남. 25세)

여성청자들이 설화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에게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던 데에 반해, 남성청자들의 관심은 아들의 입장에만 집중되고 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제사상을 앞에 두고서 이불 속에서 남편과 끌어안는 장면을 연출해야 하는 아내의 심리상태나 의사결정 과정은 남성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아내는 당연히 남편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존재라고 암암리에 여기는 탓인 듯하다. 사실 남성청자들이 이렇게 여성인 어머니보

다 자신과 같은 입장인 아들의 시각으로 이 설화를 해석하는 것은 별다른 분석이나 설명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수긍이 되는 일이다.

이 설화는 ‘祭祀의 본래 정신은 조상을 진실하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제사의 儀禮的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던 아들의 행위는 효의 본질을 달성한 것이라고 보는 여성청자들의 평가는 타당한 것이다.

한편 여성청자들이 이렇게 아들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남성청자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추론하건대, 화자가 서술한 설화적 상황을 남성청자들은 여성청자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설화 문면에는 ‘이부자리를 깔고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라고만 서술되어 있다. 이때 여성청자들은 아들의 행위를 제사와 동일한 층위의 儀禮的 행위로 보아 ‘부부가 이불을 깔고 함께 눕는’ 장면은 부부의 성행위 장면을 模擬的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년기의 남성청자들은 이 장면을 부부가 실제로 제사상 앞에서 성행위를 하였다고 비약하여 해석한 듯하다. 이는 남성청자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性的 욕망이 우회적으로 표출된 것은 아닐까 한다. 어찌 되었든, 동일한 설화 각편이라도 그 이해와 해석의 스펙트럼은 무한한 편폭을 지닌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3.3. 가족의 위계질서에 대한 저항과 옹호

조선시대에 유교제례는 상층 양반들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문화를 추종함으로써 그들과 비슷한 문화적 위상을 갖추고 싶어 했던 서민층의 욕망을 설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아래 설화는 집도 없이 떠도는 걸인조차 남의 집 밥을 얻어서라도 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상황을 보여준다. 늘 고생을 도맡아서 해오던 만며느리는 생면부지의 걸객을 위해서 제사상을 정결하게 차려 주었고, 나중에 복을 받아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결객에게 차려 준 제삿밥>, [구비대계 7-5] 562쪽, 박선자(여. 43세) 구연

결객이 어느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결객이 차려 준 밥을 먹지 않고 따로 챙겨두는 것을 본 주인이 이유를 묻자, 결객은 ‘어머니의 제삿날이라 밤에 제사를 드리려고 챙겨두었다’고 하였다. 이에 주인은 며느리에게 따로 제사상 차릴 음식을 부탁할 테니 마음껏 식사를 하라고 하였다. 며느리들에게 결객의 제사를 위한 준비를 부탁하자, 막내며느리, 둘째며느리는 거절하였으나 맏며느리는 정성껏 제사상을 차려 주었다. 그날 밤 맏며느리의 꿈에, 결객의 어머니가 나타나 학을 건네주었다. 맏며느리는 열 달 후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설화에서 막내며느리와 둘째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는 반면,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고 지친 맏며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일어나 정성껏 제수를 마련한다. 손님인 제사가 어머니의 것이면 대청에다, 아버지의 것이면 사랑방에다 제사상을 차려 주겠다는 섬세한 배려까지 하는 이 착한 며느리는 드디어 복을 받아서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되었다. 설화의 이런 서사적 논리는, 과거의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가 사실상 미래의 후손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것과 동질적인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죽은 조상은 영원히 살아서 현재의 나를 거쳐서 미래의 자손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3-3-1) 노인이 정말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되었다. 솔직히 남의 제사를 차려 준다는 약속은 자신이 한 것인데 일은 며느리에게 시키니 말이다. 노인이 며느리에게 말하면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며느리는 결객 대신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에게 태기가 생겼다는 사건은 우연한 일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순종해서 얻은 기회라고 나보고 믿으라는 건가?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부탁했을 때 당당하게 곤란하다고 하는 말투가 좋았고, 누군가에게 이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뚜렷이 펼칠 수 있는 여성인 것 같아서 멋져 보였다. (이아람, 여. 24세)

(3-3-2) 이 이야기 속의 집주인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후덕한 사람인 동시에 며느리들에게는 오지랖 넓은 시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을 굳이 챙겨서 자신들에게 일을 시키는 시아버지가 못마땅했을 것이다. 나는 착한 맏며느리도 좋지만 시아버지의 청을 거절한 다른 며느리들도 이해가 된다. 이들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은실, 여. 22세)

여성청자들은 대개 며느리에게 공연한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시아버지를 비난하고 시아버지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한 며느리들의 당찬 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이들은 외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정면으로 맞선 주체적 인물이란 점에서 마음에 든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거나 남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기를 꺼려하는 신세대의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투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설화가 사실상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수신은 여성청자들은 전면 거부한 셈이 된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런 생각을 가진 여성전승자의 입을 통해서서는 아무래도 이 설화유형이 지속적으로 전승되기 어려울 듯하다.

(3-3-3) 시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는 약간 밉다. 시아버지가 부탁하시는 건데 거절하는 것을 보니,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인데 며느리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니 힘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시아버지라면 그 며느리를 혼냈을 것이다. 이 설화의 주제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 항상 복이 돌아온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옥정훈, 남. 25세)

(3-3-4) 첫째 며느리가 걸객의 제사상을 차려 줄 때 아래빨 되는 며느리들은 왜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아무리 자기 조상의 일이 아니라고 거절을 했다고 해서, 큰며느리가 제사상을 차리는 데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조상들에게 복을 받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철훈, 남. 27세)

이 설화를 해석하는 남녀 청자들의 반응이 서로 달라서 흥미롭다. 시아버지를 비난하는 여성청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남성청자들은 가족의 위계질서라는 차원에서 가부장인 시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며느리들을 비판한다. 또한 제사상을 차리느라고 수고하는 만며느리를 손아래 동서들이 돕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반감을 표한다. 남성청자들이 이 설화를 적극적으로 전승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 며느리들에게 상당히 무거운 응징이 가해지는 것으로 서사전개가 변이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남성청자들은 이 설화의 서사적 갈등을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서열관계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조직사회의 위계질서에 민감한 남성 일반의 보편적 속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조직사회 안에서의 협동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문은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여기는 그리고 미래에 家父長이 될 운명인 남성청자들에게 있어서, 이 설화에서 며느리들에게 거절당하는 등 가부장의 권위를 실추시킨 시아버지의 형상은 상당히 불편한 정서를 불러일으켰을 법하다. 남성청자들은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지만 가문의 위상을 세우고 이를 유지해야 할 책임은 남성들에게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따라서 시아버지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며느리에 대해서는 감정적 저항이, 거절당하는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정서적 동일시가 이루어지면서 모종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고, 이것이 남성청자들의 남성적 자존심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짙다.

이와 반대로 여성청자들은, 남의 집 제사음식까지 마련하는 수고는 오롯이 여성들이 감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에 따른 감사와 칭송은 시아버지가 받게 되는 부조리함에 반발하고 있는 듯하다. 즉, ‘노력과 보상’에 따른 분배구조가 왜곡되었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청자들에게 잠재되어있던 모종의 피해의식 -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는 늘 여성의 희생과 봉사가 필수적임에 비해 그 수혜는 늘 남성들을 중심으로 분배되어

왔다는 사실 - 이 표출된 결과일지 모른다.

요컨대, 성별에 따른 이런 당연한 입장 차이가 실제로 우리 현실 속의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남녀 상호간의 충분한 이해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4. 전승의식의 변화와 구비전승의 향방

‘제사설화’에서는 정성스럽게 지낸 제사에 대한 보상으로 조상의 음덕이 반드시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제사를 부모-자식 간의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로 조명하고 있다.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는 자손에게 재산을 마련해주는 조상신의 보상은 효라는 후손의 일방적인 의무에 조상이 시혜하는 반대급부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가부장제적 가족질서를 굳건히 유지해주고 있다.

신세대 청자들의 설화해석은 설화를 구연한 화자의 의도나 설화의 주제를 상당히 빗겨가고 있음을 위의 논의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발견한 사실은 설화를 해석한 신세대 청자들의 의식을 볼 때, 남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보다는 과거로부터 전승되어온 설화에 담긴 전통적 가치관과 이를 수용하는 21세기 신세대 청자들의 가치관 사이의 놓인 거리가 훨씬 더 멀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전통적인 유교 이념과 현대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데에서 기인한 현상일 것이다.

신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현실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설화감상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性에 대한 공식적인 담론이 금기시 되던 전통사회와 달리 性이 개방된 시대를 살고 있는 신세대 청자들은 性에 대한 관심을 자유롭게 표출하면서 성적 담론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는 듯하다.

요컨대, 전승되어온 설화 각편에는 孝나 烈 같은 유교이념을 기준으로 삶을 이해해왔으며, 또한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았던 화자들의 의식이 나타

나 있는 반면, 이를 해석하는 신세대 청자들의 감상문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려는 자본주의적이고 현실적인 가치관 그리고 性을 중심으로 삶을 초점화 하는 신세대들의 문화적 코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사라는 의례의 本意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잊지 않고 기억해가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세대들에게 제사란 이제 점점 물질적 비용과 노동력이 크게 요구되는 수고롭고 부담스러운 낡은 시대의 虛禮로 인식되는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대가족의 형태에서 핵가족 형태로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신세대 청자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게 되었다. 즉, 조부모를 포함한 복합적인 가족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효의 가치관을 내면화해온 이전 세대와는 달리,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다든지 奉祭祀의 의무를 행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사회가 개인화되고 가족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 역시 이해타산적인 속성을 강하게 띠게 되면서, 노후의 삶을 자식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며 노인 스스로 대비하고 책임을 저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가고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개인적이고 합리주의 세계관을 지향하는 신세대들에게 조상신에 대한 제사라든가 타인에게 베푼 선행에 대한 환상적인 보상과 같은 설화 내용이 깊은 공감을 얻기 힘들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제사설화의 구비전승은 우리사회에서 유교이념이 차지하는 위상의 부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 같다. 제사설화의 구비전승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을 하게 된다. 효라는 의식이 약화되면서 그리고 祭祀라는 유교 의례가 사라져가면서 이런 내용의 설화도 함께 전승력을 빠르게 잃어갈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전승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설화들이 구비전승의 공간에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참고문헌

- 『韓國口碑文學大系』 전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 『韓國口碑文學大系』 별책 부록 I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금장태, 「조상숭배의 유교적 근거와 의미」, 『한국문화인류학』 제18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73-78면.
- 김미영, 「제사 모셔가기에 나타난 유교이념과 양반지향성」, 『민속연구』 제9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197-241면.
- 김상란, 「한국의 제사·혼령 설화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1-70면.
- 서선희, 「한국적 효 개념의 특수성」, 『한국노년학』 18집, 한국노년학연구회, 1998, 142-154면.
- 이 옥, 「제사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연구』 제16집, 한국유교학회, 2002, 79-106면.
-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가계계승과 혈연의식」, 『고전문학연구』 2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5-34면.
-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2008, 1-717면.
- 임재해, 「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 『민속연구』 제9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7-50면.
- 정재민, 「<부정한 제사음식> 설화의 변이와 그 의미 - ‘神罰型’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0, 189-217면.
- 천혜숙,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본 구비전설의 세계」,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上, 월인, 2003, 353-392면.
- 최종성, 「민속과 유교」, 『비교민속학』 제24집, 한국비교민속학회, 2003, 33-59면.
- _____, 「儒醫와 巫醫-유교와 무속의 치유」, 『종교연구』 26집, 한국종교학회, 2002, 151-174면.

A Study on the future of oral transmission
of the 'folktales related to ancestor memorial rites'

Lee, In-gyung

In Confucian society, filial piety is largely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supporting one's parents during their lifetime, and the other is performing funeral service and ancestor memorial rites after their death.

This paper researched what would be the future of oral transmission depending on the change of bearers' viewpoints and philosophy, especially about the 'folktales related to ancestor memorial rites'. This study had been proceeded as follows.

I had some students, being at college or graduate school, appreciate the 'folktales related to ancestor memorial rites' and make descriptions of their impressions. And then, I compared their various impressions and interpretations found in the descriptions with the storytellers' messages in the folktale versions they narrated orally.

As the result, I found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wo. The students, that is, the new generation do not agree with the sense of values Confucian ideology, that the story tellers emphasize in their folktale versions. For example, the students all pointed out serious problems and absurdity of the facts issued from male -oriented lineage succession and the notion of preferring a son to a daughter.

Briefly speaking, the future of oral transmission of the 'folktales related to ancestor memorial rites' is not good. Because it seems that the most bearers, who should hand over Korean folktales in the future, would not willingly transmit 'the folktales related to ancestor memorial rites'.

Keywords: folktale, 'folktales related to ancestor memorial rites',
oral transmission, Confucian ideology

접수일자: 2010. 3. 10
심사기간: 2010. 3. 10~2010. 5. 20
게재결정: 2010. 5. 20